

傳統성과 地域성을 고려한 中小都市型 複合住宅의
改造 및 新築事例에 관한 研究*
- 淸州地域을 중심으로 -

The Regional Traditionality of Townhouse in the small and
medium urban areas of Korea

金 泰 永** 朴 重 信***
Kim, Tai young Park, Chung shi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ownhouse corresponding to the changing life style for the future, and suited to the small and medium urban areas of Korea(focused on Chongju area) from its traditionality and regionality's point of 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traditional design elements of Chongju area : 1) A court; a court of inner building - light, wind. 2) A balcony; intermediate space, cornice. 3) Eave line; a horizontal line for approach.
2. The regional design elements of Chongju area : 1) Maintenance of skyline which had the same building height as strip of road. 2) The formal·spatial design elements to think about natural view. 3) Simple appearance and delicate detail.

키워드 : 전통성, 지역성, 지역형 주택

key words : Traditionality, Regionality, Regional Townhouse

1. 서 론

한국의 지역형 주택은 서구자본주의 문화의 이입과 동시에 근대적 의미의 도시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래주택 및 상점은 사회·문화적인 변동에 편승하여 상(商)·영업기능 등을 수용하면서 2층 한옥상가¹⁾ 또는 병용주택²⁾과 같은 새

로운 근대적 도시주택 형식으로 변화되면서 오늘 날과 같은 지역의 경관을 이루어 왔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현대의 도시주택은 산업·경제주의의 논리와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물리적인 도시구조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건축생산의 공업화와 건축양식의 시대적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경관은 획일화·규격화·통일화되어 가고 있으며, 별다른 대안을 갖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과급되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동일한 형식과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시적 기능으로서의 복합주택³⁾ 만큼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핵심전문연구(981-1212-033-1)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청주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

***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1) 양상호, 2층 한옥상가에 관한 사적연구 -20세기 전반기의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명지대, 석론, 1985. pp.10~14
2) 김제범, 80년대 이후 도시 상업병용주택의 구성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92. p.8

3) 복합주택이라는 용어는 현재 점포주택, 상가주택, 점포병용주택, 상업병용주택, 주상복합주거, 소규모 복합주거 등 다양한 어휘로 불리어지고 있으나, 앞

에서도 그 고유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담아왔으며, 또한 지역적으로 독특한 성격을 표출해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국(自國)의 전통성과 지역의 도시적 맥락을 반영하면서 현재와 앞으로의 삶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형 도시주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적 연속성으로서의 전통성과 지역 도시공간구조의 성격을 반영하면서도 도심지역의 주·상·영업 기능을 담당할 복합주택의 개조 및 신축사례를 통하여 근대화·도시화를 거치면서 간과되거나 잃어버린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역적 전통성은 도시공간구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간·형태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오늘에 현존하는 가를 알아보고자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적·시기적 범위로는 중소도시에 현존하는 도시복합주택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성곽도시에서 근대적인 격자형 시가지구조로 변천한 중소도시중 내륙지방도시인 청주의 구 도심지역⁴⁾이다. 이 지역 역시 타 지역의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개조된 전래의 도시주택과 신축된 건물들이 혼재되어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 도시복합주택을 대상으로 관찰조사를 행한 뒤, 공간·형태의 다양성보다는 물리적인 도시공간구조에 제한하여 개조 및 신축 사례를 추출하였으며, 이들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변 가로구성 및 공간·형태적 특징요소에 유의하면서 지역적 전통성의 특징적인 표현요소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2. 전통성과 지역성의 해석

도시는 그 지역만의 역사적 환경(context)을

의 네 어휘는 점포 및 상가 등 특별한 기능에 한정되어 있고, 뒤의 두 어휘는 비교적 대규모의 건물을 의미하고 있어, 본 논문에는 주거기능에 상업 또는 영업기능과 기타기능을 수용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복합주택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4) 1939년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의해 계획·설정된 당시의 청주지역의 범위를 이룸, 현재의 상당구 일대임.

가지고 공간·형태적 요소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변화되고 있다. 도시환경은 내재된 고유의 식의 발로이며, 지속된 생활문화의 표출로서 건축물은 형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개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시대 그 장소에 따라 그 건축의 존재와 가치가 성립되기 때문에 생명력을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⁵⁾

따라서 전통계승과 지역성의 해석은 지역 고유의 문화 속에 변용의 과정을 이해하고 지역특성 자각의 견지에서 현존하는 건축물을 분석함으로써, 창작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1 시간적 연속성으로서의 전통성 해석

우리에게 전통의 표현 또는 계승의 문제는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법이나 적용방법 등의 방향모색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 근대사의 특수상황'이라는 현실로 이해하려는 수동적인 견해가 대부분이나, 건축행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각 지방도시의 기후, 풍토, 생활양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측면의 전통인식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 즉, Tradition의 어원은 'tradere'에서 온 말로서 transmit 또는 carry on의 뜻을 가진다.⁶⁾ 또한, 전통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계통을 받아 전함' 또는 '이어받은 계통', '관습 가운데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특히 높은 규범적 의의를 지닌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우리에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전통이라는 것은 전승이나 계승이라는 개념 없이는 논의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장소성과 지속적인 시간

5) 이배화, 전통은 고귀한 것, 보편성과는 차원이 달라....., 건축과 환경, 9011, p.35

6) 한상석, 앞의 책, 청주대, 석론, 1996. p.13

의 흐름을 통해 우리의 생활양식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지역적 정서의 저변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문화적 규범까지의 무형적인 질서체계를 가지고 발전 또는 계승하게 됨으로 고유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에 있어서 전통의 계승은 지역적 정서와 생활문화를 배경으로 근대 이전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속되는 과정 속에서 세워져야 하며, 근대라는 시기는 단절된 역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⁷⁾에서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함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2.2 장소적 특수성으로서 지역성의 해석

1900년대 이후 보편적 기능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은 신기술의 발달과 과학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조류에 편승하여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단순한 형태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건축은 "기능과 미의 등가"⁸⁾라는 공식으로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거의 같은 모습으로 이식되어갔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각 국가 또는 민족의 주체적 정서의 자각을 주축으로 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짐으로 근대건축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 지역만의 정서를 반영하고자 하는 독특하고 다양한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⁹⁾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은 너무나 다양한 건축관에 기본을 두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론이 아니라 옛날 그대로의 건축에 대한 본연의 자세 또는 형성 방법에만 관심을 두었다. 거기에는 보다 풍부한 조형, 보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와 기술, 보다 강한 전통과의 결부, 그리고 보다 깊은 정서적 효과를 추구하는 방식으로¹⁰⁾ 전개되

고 있었다. 지역성에 대한 건축적 개념전개는 장소와 지역적 경관 즉, 태고 적부터 제일 중요한 현실로 생각된 장소의 혼¹¹⁾(genius loci)에 대한 상호작용의 일관된 논리로 설명되며, 그 지역의 환경과 연관하여 '있는 그대로'의 형식에 의해 건축공간과 형태가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지역성' 또는 '지역주의' 개념은 하나의 구체적인 건축사조나 이론이라기 보다는 근대 합리주의의 결함을 보충하려는 태도로서 설계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¹²⁾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건축적 발전을 통해 지역성의 해석은 다원화되는데, 특히 김경수는 「지역성」을 역사주의와 복고주의, 유기주의, 비판적 지역주의 등의 3가지로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¹³⁾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이라면, 지역성을 해석함에 있어 전통에 대한 역사주의나 복고주의로의 공통된 해석적 측면의 한계를 넘어서 세분화하여 지역의 토착적 기술과 미적 전통을 이해함으로써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성이라는 개념은 각 지방도시 자체의 고유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성 해석의 기본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3 청주 도시복합주택의 지역적 전통성

(1) 청주 도시구조의 공간·형태적 특징

'맑은 고을'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청주(淸州)는 산·하천·나무와 같은 풍부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충청권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며, 행정과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 발생한 전형적인 성곽도시이었다.¹⁴⁾

근대기에 이르러 1911년에서 1915년 사이에 기존의 청주 읍성이 허물어지면서 시작된 청주

7)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연구실, 근대도시주택, 연구보고 I, 1992, p.2
8) 이동수, 한국현대건축에 있어서 지역성표현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론, p.20
9) 허정아·소병익, 현대건축에서 지역성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7권, 제1호, 1997년, 4월. p.133

10) Vittorio M. Lampugnani, 위의 책, pp.263~264
11) 고대 로마의 종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어떤 장소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기질이나 분위기를 말한다. 허정아·소병익, 위의 책, p.134
12) 윤장섭, 서양현대건축, 보성문화사, 1987, pp.158~160
13) 김경수, 한국현대건축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론, 1989, pp.99~103
14) 청주시지 편찬위원회, 청주시지, 1976, p.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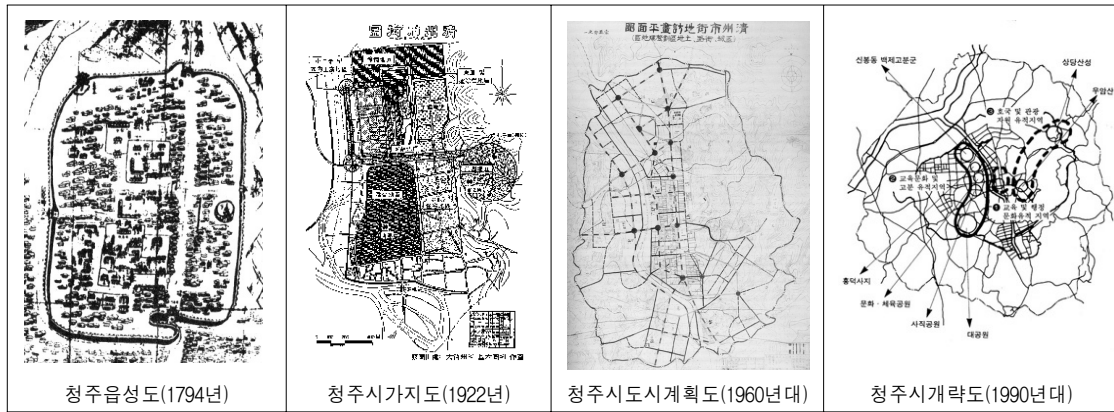


그림1. 청주 구도심의 형성 및 변천과정

의 근대적 도시건축의 모습은 무심천 변과 우암산 자락을 끼고서 남북방향의 기다란 선형(線形)의 격자도시를 이루게된다.

이러한 선형 도시구조는 1968년 청주역사(淸州驛舍)의 이전과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남북방향의 상당로와 동서방향의 사직로가 개설되면서 북부와 서부, 남부 쪽으로 전개되었다. 남북 방향 쪽으로의 전개는 도로 뿐만 아니라 청주읍성 자리인 구 도심을 중심으로, 까치내까지 이어지는 무심천의 수자원 체계, 상당산성에서 우암산 및 당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체계, 신봉동 백제고분군·운천공원·홍덕사지·사직종합체육시설단지 및 사직공원으로 이어지는 구릉체계에 의해 대상(帶狀)의 형상으로 통일되어 나타나기도 한다.(그림1-청주시 개략도 참조)

도시구조의 수평적 전개와 더불어 1980년대에는 도심 주변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완공을 보면서 저층공동주택군이 들어섰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도심외곽의 신항주택지에 고층아파트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청주지역의 전체적인 도시경관은 타 도시와는 다르게 그다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있다.¹⁵⁾

고층 건물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및 개인건물

은 5층 이하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는 청주시민의 정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이는 수직적인 확장보다는 도심 가로망의 폭에 적합한 규모로서 전반적인 수평적 도시구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청주 도시복합주택의 형성과 전개

근대화·도시화는 봉건도시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도시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결과 청주지역의 도심내부에 근대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1921년 조치원 철도가 개통된 이후 본격적으로 건축관련기술 및 기술자가 유입되었다. 이 시기에 청주로 이주해 온 일본인들은 대부분 공무 및 상업에 종사한 관계로 이들의 주 거주처는 병용주택이었다.

이들 건물은 주로 중앙로(中央路)¹⁷⁾와 성남로(城南路)를 중심으로 가로변에 연하여 세워졌으며, 특히 성곽의 남문 안팎인 남문로1·2가동을 중심으로 약품, 금속제품·시멘트·석회 및 미장재료를 취급한 각종 상점들이 위치하였다.¹⁸⁾

또한, 북문로 일대는 청주지역에서 근대적인

15) 김태영, 청주읍성내의 어제와 오늘, 건축사, 9805, p.86

16) 송인호, 도시형 한옥유형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3, p.18

17) 현재의 성안길을 이룸.

18) 청주대학교 건축계획연구실, 앞의 책, 1994, p.18

격자형 도로망이 새롭게 형성된 최초의 시가지로서, 1922년 ‘대청주계획’[그림1-청주시가지도] 당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양복점, 토목청부업, 정미업, 미곡상, 재목상, 주조상 등의 상점들로 거리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들 상점은 대부분 주거능(住機能)이 딸린 복합주택들이었다.¹⁹⁾

또한, 1939년에 계획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0년대에 이르러 이를 보완하여 시행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그림1-청주시도시계획도 참조). 북으로 내덕동·우암동, 남으로는 금천동·수곡동·영운동 까지 도시규모가 확장되면서 이를 연결하는 상당로 및 주변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도시복합주택군들이 분포하고 있다.

3. 사례조사 및 분석

3.1 사례의 선정배경 및 기준

앞 장에서 언급한 전통성과 지역성을 고려하면서, 청주 읍성곽의 흔적과 근대기 이후에 형성된 격자형 도시구조가 혼재하고 있는 청주지역 구 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개조·신축 등의 건축행위를 통해 세워진 도시복합주택 중에서, 생활양식의 변천과정을 기반으로 한 전통성과 지역의 풍토와 도시화 과정상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첫째로, 입지(立地)에 있어서, 생산경제논리에 입각하여 비교적 거대한 건물규모가 덩해지는 대로(大路)변 보다는 중·소로, 혹은 이면도로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가각진 모서리가 아닌 전면으로 1면 도로에 접하는 대지를 선정하였다.

둘째로, 건물규모는 청주의 경관과 관련하여 기존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는 4층 이하²⁰⁾의 저층 건물인면서, 동시에 가로변에 접하는 건물

높이를 도로 폭과 동일한 정도의 범위로 하고 있는 것²¹⁾, 그리고 건물정면구성에 있어서 도로에 접한 전면 폭이 3칸 이하인 것 등이다.²²⁾

셋째로, 기존 도시주택을 개조한 사례의 선정에 있어서는 건축공간 및 형태적 측면에서 전래형식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신축 사례에 있어서는 개성이 강한 외관보다는 지역의 일반적인 도심환경을 반영하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3.2 사례의 정보추출 및 조사

조사대상 추출의 정보를 분류하여 보면,

- ① 관찰조사에서 느껴지는 건물...1(49 EA)
- ② 기존의 조사된 내용
 - a.김태선, 청주대 석사논문²³⁾...2-a(16 EA)
 - b.근대도시주택실측조사보고서²⁴⁾...2-b(10EA)
- ③ 청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응모작품...3(2EA)
- ④ 앙케이트 조사시 소개
 - a.설계자...4-a(4EA), b.건축주...4-b(3EA)
- ⑤ 청주건축사회건축작품집 수록작품...5(4EA)
- ⑥ 건축관련 잡지에 발표된 작품...6(2EA)
- ⑦ 기타 일반인의 소개...7(14EA)와 같다.

추출된 104개의 사례를 현지답사하고 건물의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당 관공서에 비치된 관계자료를 열람하여 정리하였다[표 1]. 이들 중 개조된 것 8동, 신축된 것 10동 모두 18동을 선정하여 건물실측과 더불어 건물약사 및 건축행위의 과정, 주변 가로구성의 변화 등에 대하여 건축주·시공자·설계자에 대한 설문문을 통하여 2차 조사를 행하였으며, 설문이 불가능한 경우 참고자료를 활용하였다.

21) 도로 폭(w)에 의한 사선제한인 건물높이 1.5w는 실제로 좁은 도로 폭에서 천공(天空)을 가리고 있어 신축할 때 기존의 도로 폭과 거의 비슷한 건물 규모가 인간척도(human scale) 상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22)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되는 대지규모 10~×20~m에 준하되, 도심가구의 속성 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폭을 가능한 한 최소로 택한 건물을 선정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건물 전면 폭을 최대 10m, 3칸 이하로 하였다.

23) 김태선. 앞의 논문, 1997

24) 청주대학교 건축계획연구실, 앞의 책

19) 김태선, 청주지역 복합주택의 유형화와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론, 1997, p.18

20) 최근 청주시 도시계획제정비안에서 청주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무심천변 간선도로에 의한 건축선에서 50m까지를 4층 규모 이하로 고도지구규정을 통과시켰다.

표 1. 조사대상 건물 목록

NO	건물명칭	대지위치	층수	연면적(㎡)	구조	출처	연도(개조)	NO	건물명칭	대지위치	층수	연면적(㎡)	구조	출처	연도(개조)
1	adidas대리점	BM1 48-20	2		W	1		56	만남주점	BM3 51-7	2	99	B	2-a	78
2	LG Fashion	BM1 48-21	3		W	1		57	만경식당	BM3 99-6	4/1	678	RC	2-a	84
3	충청음악사	BM1 97-4	2	46	W	1	42	58	마산아구집	BM3 99-7	4/1	597	RC	2-a	87
4	나도약국	BM1 118-1	1		W	1		59	조형건축	BM3 99-2	3/1	813	RC	2-a	86
5	풍년여인숙	BM2 67-3	1		W	2-b		60	맛나식당	Y 44-3	2	142	B	2-a	71
6	지성야식	BM2 84-5	2	95	W	1	52(93)	61	콩사랑식당	Y 45-3	2/1	274	RC	2-a	87
7	음식점 블럭	BM2 98-3,4	1	222	W	2-b	32	62	충북과학상사	Y 53-6	3/1	417	RC	2-a	88
8	금광당	BM2 122-1	1	260	W	2-b	30(60)	63	원님골식당	Y 77-1	3/1		RC	1	
9	25시 식당	BM3 93-2	1	259	W	2-b	42(84)	64	SDA교육관	Y 98-1	2	283	RC	4-b	84
10	동경다실	BM3 122-5	1	173	W	1	43	65	SIN스튜디오	Y 100-6	4/1	491	RC	1	91
11	청주문구사	BM3 122-6	1	108	W	1	30	66	영동주택	Y 340-6	2		B	1	
12	연홍정사진	Y 96-1	1	100	W	1	58(60)	67	황형남한의원	S 292-19	4/1	296	RC	7	88
13	영금당	NM1 84-6	2	49	W	7	64(78)	68	삼일철학원	S 288-21	3/1	323	RC	1	89
14	행남자기	NM1 233-5	2	79	W	1	61	69	진성식당	S 288-22	2/1	194	B	1	93
15	로얄남성복	NM1 324	1	138	W	2-b	45	70	경희한의원	S 316-4	3/1	475	RC	1	86
16	랜드로바	NM2 17-2	1		W	1		71	삼일정관인쇄	S 316-13	2	296	RC	7	70(83)
17	옛날야식	NJ 6	2		W	1		72	동생한의원	S 316-19	2/1	311	RC	5	83
18	진성상회	NJ 212-5	2	56	W	2-b	45(78)	73	새마을금고	S 316-24	2/1	203	RC	1	72
19	정운상회	NJ 288	2	46	W	2-b	43(60)	74	박소라미용실	S 336-2	3/1	493	RC	5	95
20	(구)상공회의소	NJ 326-10	2		W	1		75	영생약국	S 338-4	3/1	653	RC	1	89
21	아트디자인	UA 154-5	2		RC	1		76	우미건축	S 345-4	3/1	283	RC	7	95
22	충청일보사	UA 237-2	2	329	B	1	78(80)	77	현석건축	S 357-3,6	3/1	481	S	3	97
23	마이겐 호프	UA 237-4	2		B	7		78	꾸미지오펜서	S 401-12	3/1	157	RC	1	98
24	영흥약국	UA 321-4	3/1		RC	7		79	탑건축	S 405	4/1		RC	1	
25	책 니클라우스	BM1 53-4	3	64	RC	1	70	80	신용출판사	S 437-2	3/1		RC	7	
26	광명당안경	BM1 87	4/1	480	RC	7	81(92)	81	한국음악학원	S 447-1	3	1026	RC	1	81
27	코오롱모드	BM1 92-5	3	140	RC	1	88	82	AXIS-1	NM1 80-3	4/1	390	RC	5	98
28	Levi's 대리점	BM1 97-2	3		RC	2-b		83	그린수업의류	NM1 28-2	2		S	1	
29	La Lee	BM1 142-1	4	328	RC	1	96	84	대홍장여관	NM1 29-8	3/1	344	B	1	71(86)
30	맥사진관	BM1 174-5(?)	4/1	377	RC	1	74(93)	85	헤어드레서	NM1 233-19	3/1		RC	1	
31	(구) 수아사	BM2 54-2	4/1	669	RC	1	69	86	백합훈수방	NM1 233-29	3/1	285	RC	7	71
32	금호전당포	BM2 50-4	3/1	83	RC	2-a	76	87	김인수패션	NM1 233-32	3/1	198	RC	1	71
33	박 산부인과	BM2 77-4	3/1	814	RC	2-a	77	88	(구)공원오락실	NM2 92-1	2		B	2-b	
34	삼양 스포츠	BM2 77-10	4/1	826	RC	2-a	86	89	덕흥상회	NM2 107-5	3	494	RC	1	85
35	대복장 여관	BM2 79-13	4/1	276	RC	2-a	73	90	사철방아간	NJ 368	1	72	B	2-b	44
36	학천 카렌드	BM2 83-9	2	129	RC	1	82	91	한일기물	NJ 10	2		B	1	
37	서당서점	BM2 84-3	2/1	325	B	2-a	74	92	비양카	NJ 190-1	2		B	1	
38	황혼장 여관	BM2 89	3		RC	1		93	카스계기	NJ 537-6,10	2		B	1	
39	효성 한의원	BM2 92-8(?)	3/1	80	RC	1	81	94	잭슨커피숍	SM 32-2	3/1		RC	1	
40	철학 연구원	BM2 94,92-2	3	162	RC	7	77	95	김내과	SM 159-45	4/1	1570	RC	4-a	97
41	태극당	BM2 94	3		RC	1		96	경산의원	MH 100-1	2/1	373	RC	7	72(86)
42	삼양출판사	BM2 114-4	3	250	RC	2-a	82	97	풍림다실	SW 89-6	3		RC	1	
43	진희다실	BM2 114-24	2	102	RC	1		98	조한의원	SK 4-8	4/1		RC	1	
44	신용협동조합	BM2 116-23	3/1	491	RC	7	84	99	광복철상회	SK 125-60	2		B	1	
45	유신상가	BM2 116-102	3	278	RC	2-a	73	100	K2레포즈	?	2		B	1	
46	충북간호학원	BM2 116-117	4	880	RC	1	72	101	호암인쇄사	S 393-16	2/1	262	B	1	87
47	이진법 외과	BM2 116-147	3/1	649	RC	2-a	80(85)	102	주성하이퍼	S 393-15	3/1	684	RC	1	94
48	김진용 내과	BM2 116-149	3/1	809	RC	7	90(92)	103	충주염소탕	S 262-11	3/1	415	RC	4-b	92
49	대한항공	BM2 116-174	3/1	493	RC	3	95	104	대동기업	S 262-10	4/1	449	RC	4-b	94
50	고구려주점	BM2 135-7	1	111	B	4-a	68(97)								
51	예술원사진관	BM2 135-8	3		RC	1									
52	(구)금마여행사	BM2 188	4/1		RC	1									
53	충북국악학원	BM3 3-8	4/1	1030	RC	4-a	76(97)								
54	이형수외과	BM3 3-9,10	2/1	507	RC	4-a	96								
55	포레이건축	BM3 87-4	4/1	1081	RC	2-a	81(93)								

• 법례(건물동수)- UA:우암동(4)/BM1:북문로1가동(10)/BM2:북문로2가동(26)/BM3:북문로3가동(10)/Y:영동(8)/S:수동(20)/NM1:남문로1가동(9)/NM2:남문로2가동(4)/NJ:남주동(8)/SM:서문동(2)/MH:문화동(1)/S W:서운동(1)/SK:석교동(3)/SC:사창동(2)/BD:북대동(1)
 • 법례(건물구조)-W:목조,B:조적조, RC:철근콘크리트조, S:철골조

3.3 사례의 유형별 특징

추출된 104개 사례를 구조별로 살펴보면 목조 20개, 비목조 84개로 나타났다. 비목조 중 RC조 65개, 블록조 17개, 철골조 2개로 RC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축연대가 정확히 조사된 73개 중 건물 내구연한이 30년 이상된 70년대 이전의 것이 16동, 70년대 이후가 57동이다.

또한 사례선정기준상으로 볼 때 지역적 전통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추출된 104개 사례를 대상으로, 공간구성 및 외관상의 건축행위에 따라 기존의 전래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전래형식유지형, 부분적으로 개조·변경된 부분개조형, 그리고 새롭게 지어진 신축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외관구성에서 전래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13개, 부분적으로 개조 및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12개, 새롭게 신축된 것이 79개로 나타났으며, 내부공간구성에서는 전래형식유지형 22개, 부분개조형 17개, 창작지향형 65개로 나타났다. 분류된 유형에서 외관과 내부공간구성의 유형분석을 위하여 형태·공간 구성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구조재의 종류에 따라 목조와 비목조로 구분하여 크로스 체크한 결과 [그림2]와 같이 나타났다.

		공간구성 (X)		
		유지형 A	개조형 B	신축형 C
외 관 (Y)	유지형 1	1A 50 (5 7 14 15 17 18 19 20)	1B 100 (6 10 11)	1C
	개조형 2	2A (8 13)	2B 25 89 91 (1 2 3 4 9 12 16)	2C
	신축형 3	3A 21 22 23 37 43 56 60 61 69 73 97	3B 92 93 94	3C 24 26~36 38~42 44~49 51~55 57~59 62~68 70~72 74~87 90 95 96 98 99 102~ 106

()은 목조
그림 2. 외관과 내부공간구성의 유형별 크로스 체크

(1) 전래형식유지형

목조의 경우 근대 도시복합주택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건물의 규모가 2층 이하이며, 대부분 1960년대 이전에 신축되어 1960년대 이후 외관 및 내부공간을 수 차례 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에 연하여 수평 지붕선을 유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찬가지로 비목조의 경우(블록조, 비목조-1A·1B)에도 지붕구조를 목조로 채택하여 지붕을 구성함으로써 비슷한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조에서는 새롭게 신축한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목조-1C), 비목조의 경우 3층 이상의 건축이 가능하여도 2층의 규모로 되어 1층 상기능, 2층 주거기능을 설정하고 있어, 공간구성적 측면에서 근대 도시복합주택의 전형이 유지되어 있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비목조-3A)

(2) 부분개조형

부분 개조 및 변경형으로는, 근대기에 세워진 복합주택의 지붕선 앞에 보조 구조물을 덧 세우거나, 외벽면을 덧대는 등의 개조가 이루어진 사례로 지붕을 제외하고 기존의 모습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목조-2A·2B, 비목조-2B). 주로 수평증축 또는 처마공간의 내부공간화가 이루어지고, 기존의 지붕선과 증축된 건물의 파라렛이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전래형식 유지형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2층 이하이며, 외관만을 개조한 경우(목조-2A)와 내부공간만을 개조한 경우(목조-1B, 비목조-1B)도 있다. 가로구성의 모습은 도로방향의 처마선, 눈썹지붕선, 파라렛, 몰딩선 등에 의해 수평적 경향은 유지되고 있다.

(3) 신축형

대부분 1970년대 이후 신축된 복합주택으로서, 비목조(3A·3B·3C)에서만 나타나는 사례이다. 주로 건물높이가 도로 폭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면이 3칸이거나 그 이하로 구성되어 비슷한 건물 규모로 가로경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건물의 외관에

표 2. 목조 유지형 및 개조형(1·2/A·B) 사례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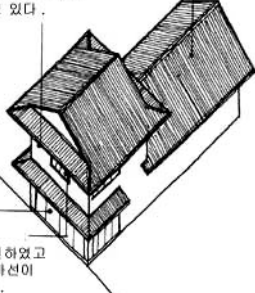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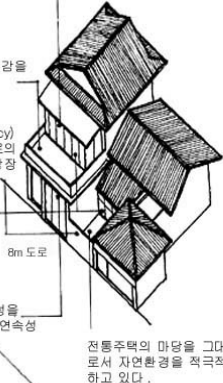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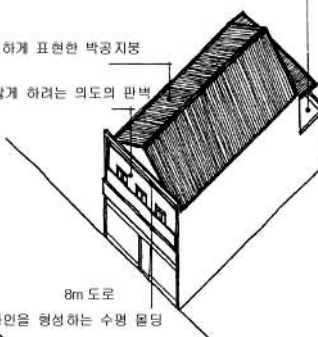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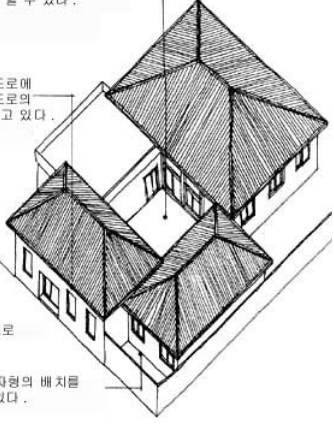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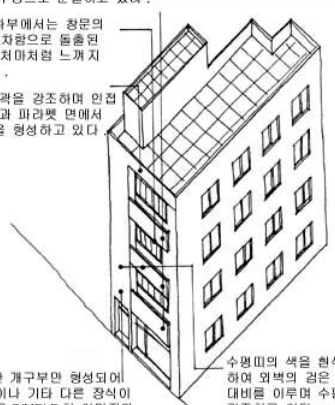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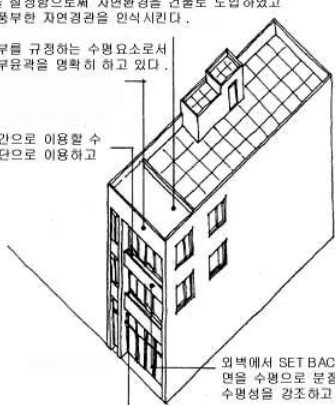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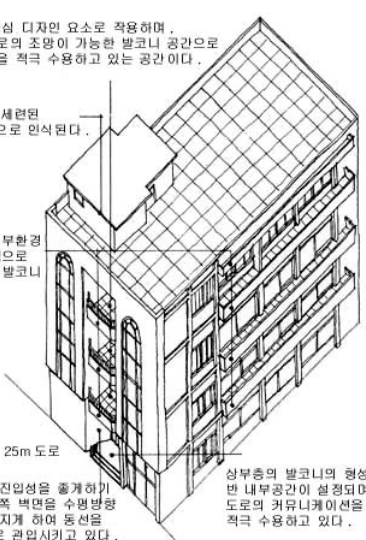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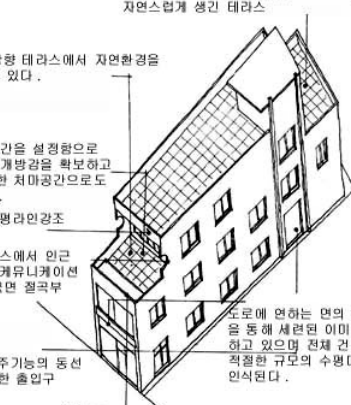
공간구성 외관		전례형식 유지형 A	부분 개조형 B
전례형식 유지형 1	개요 특징 건축어휘	<p>목조-1A, 남주동212-5, 2/0, 45(78)</p> <p>근대 병용주택, 진입-동, 좌향-남</p> <p>수평지붕선, 눈썹지붕</p>	<p>목조-1B, 북문로2가84-5, 2/0, 52(93)</p> <p>진입·좌향-남, 출입구분리</p> <p>중정, 처마, 수평지붕선 및 물당선</p>
	Axono-metric	<p><18> 진성상회</p> <p>후면 주거부분으로 남향을 주 향으로 하며, 전면성 기능의 발적지붕과는 대조적으로 박공지붕을 채택하고 있다.</p> <p>전면에 발적지붕의 측면으로서 처마선이 형성되어 수평성을 강조하고 있다.</p> <p>처마공간의 형성으로 도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수용하고 진입성을 고려하고 있다.</p> <p>전통건축의 발적지붕을 모현하였고 전면 폭이 좁은 관계로 처마선이 전면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p> 	<p><6> 지성야식</p> <p>지붕하부에 서까래 모양의 부재; 전통형태의 지붕과의 조화를 고려한 의도로 파악된다.</p> <p>마당이외의 또 다른 개방감을 부여하고 있는 테라스</p> <p>마당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확보하고 내부공간으로의 영역감을 부여하기 위한담장</p> <p>마당과 테라스를 반 내부공간으로 설정하기 위한 유리문</p> <p>8m 도로</p> <p>수평미가 돌출되어 수평성을 강조하여 전체 건물군의 연속성을 부여하고 있다.</p> <p>전통주택의 마당을 그대로 설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p> 
	유사사례	목조- 5, 7, 14, 15, 17, 19, 20 비목조- 50	목조- 10, 11 비목조- 100
부분개조형 2	개요 특징 건축어휘	<p>목조-2A, 남문로1가84-6, 2/0, 64</p> <p>박공면 관벽, 출입구 통합</p> <p>수평물당선</p>	<p>목조-2B, 북문로3가93-2, 1/0, 42(84)</p> <p>외벽면 개조, 출입구 통합, 수직중축, 수평지붕선</p>
	Axono-metric	<p><13> 영금당</p> <p>남측면에 인접 건물과 연벽이 형성되어 일조가 용이치 않으므로 동측 일조를 고려하여 건물 후면영에도 불구하고 테라스를 설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처마를 지붕에 부가함으로써 외기에 대응하고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p> <p>목가구구조를 솔직하게 표현한 박공지붕</p> <p>박공면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의 반벽</p> <p>8m 도로</p> <p>인접건물과 수평간선을 형성하는 수평 물당</p> 	<p><9> 25시식당</p> <p>건물군 내부에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중정으로 외부로는 폐쇄되어 있고 내부로는 개방되어 건물 내부환경에 충실한 공간요소라 할 수 있다.</p> <p>지붕의 처마선을 도로에 면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수평질서를 강조하고 있다.</p> <p>15m 도로</p> <p>전통 주택의 'ㄱ' 자형의 배치를 충실히 유지하고 있다.</p> 
	유사사례	목조- 8	목조- 1, 2, 3, 4, 12, 16 비목조- 25, 89, 91

표 3. 비목조 신축형 (3C) 사례의 기술

공간구성 외관		신축형 3C	
신축형	개요 특징 건축어휘	비목조-3C, 북문로 2가 77-10 4/1, 1980 점포주택, 상가군에 위치 층사이의 돌출한 수평띠, 단순한 이미지의 외관	비목조-3C, 북문로2가 114-4, 1982 점포주택, 세장형대지 발코니에 의한 수평띠, 옥상정원
	Axono-metric	<p><34> 삼양스포츠</p> <p>건물 외벽에 요철을 이용하여 돌출한 수평띠로서 발코니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니 건물외관에서 중심 디자인 요소로서 수직 방향의 건물 MASS를 수평으로 분절하고 있다.</p> <p>각 층의 하부에서는 창문의 상부에 위치함으로써 돌출된 수평띠가 치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p> <p>건물의 윤곽을 강조하며 민첩하는 건물과 파라넷 면에서 수평라인을 형성하고 있다</p>  <p>수평띠의 색을 흰색으로 설정하여 외벽의 검은 타일과 대비를 이루며 수평라인을 강조하고 있다.</p> <p>1층의 계단 개구부만 형성되어 있고 창문이나 기타 다른 장식은 없는 면으로 SIMPLE한 이미지의 외관을 구성하고 있다.</p>	<p><42> 삼양출판사</p> <p>옥상정원을 설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건물로 도입하였고 도로에서 풍부한 자연환경을 인식시킨다.</p> <p>건물의 상부를 규정하는 수평요소로서 건물의 상부윤곽을 명확히 하고 있다.</p>  <p>발코니 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화단으로 이용하고 있다.</p> <p>외벽에서 SET BACK된 창호면을 수평으로 분절함으로써 수평성을 강조하고 있다.</p> <p>하부에서 치마처럼 인식될 수 있으며 1층에서는 진입부위를 강조하는 요소로도 인식되므로 도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된다.</p>
3	개요 특징 건축어휘	비목조-3C, 북문로3가3-8, 5/1, 1976(1997 개조) 점포·사무실·의원, 25M 대로(상당로)변에 위치, 발코니에 의한 반내부공간	비목조-3C, 남문로2가동107-4, 1976 점포주택, 남문에 위치, 도로폭과 동일한 높이의 규모 돌출 파라넷에 의한 수평선 처리, 최상부층 셋백
	Axono-metric	<p><53> 충북국악학원</p> <p>정면의 중심 디자인 요소로 작용하며, 우람산으로의 조망이 가능한 발코니 공간으로 자연환경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공간이다.</p> <p>도로에서 세련된 수평라인으로 인식된다.</p> <p>주변의 외부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발코니 공간</p>  <p>25m 도로</p> <p>상부층의 발코니의 형성으로 반 내부공간이 설정되며, 도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p> <p>보행자의 진입성을 높게 하기 위하여 한쪽 벽면을 수평방향으로 경사지게 하여 동선을 건물내부로 관입시키고 있다.</p>	<p><90> 덕홍상회</p> <p>주변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SETBACK된 면에 자연스럽게 생긴 테라스</p> <p>3층의 남향 테라스에서 자연환경을 수용하고 있다.</p> <p>반 내부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외부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치마공간으로도 인식된다.</p> <p>외관의 수평라인 강조</p> <p>전면 테라스에서 인근 건물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곡면 절곡부</p> <p>도로에 면하는 면의 수평분절을 통해 세련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에서 적절한 규모의 수평띠로 인식된다.</p>  <p>12M 도로</p> <p>도로에서 거꾸걸 없는 건물 높이(2층)를 설정 도로에 면하는 면의 공공성 고려</p>

서 좁은 전면 폭 전체를 수평연속창으로 하고 있어 도시구조의 수평성에 대응하고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단순한(simple)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공간구성상 전래 점포 및 한옥상가의 공간구성인 1층 상가, 2층 주택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조적조 건물이외에 1·2층 상가 및 영업 기능, 3층 주택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지역적 전통성의 표현

4.1 외관구성요소

청주지역 도시복합주택의 신축 및 개조사례를 전래형식유지형, 부분개조형, 창작지향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바, 도로에 면한 외관구성에 있어서 전통적 디자인요소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어낼 수 있었다.²⁵⁾

① 처마선: 도로에 연하는 건물의 앞에 수평 라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주로 저층을 형성하는 가로구성에서 느껴질 수 있는 요소로, <6>지성야식·<18>진성상회·<50>고구려주점은 지붕 처마선을 도로에 면하게 함으로써 주변의 수평적 질서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18>진성상회는 도로에 면한 건물의 전면 폭이 좁고, 대지 안쪽으로 깊어 처마선이 전면을 향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층 상부에 처마선을 두고 있다.

② 발코니(돌출·수평띠): 건물의 수평적 입체감을 부여하는 장식적 디자인 요소로, <34>삼양스포츠·<42>삼양출판사·<67>황형남한의원·<105>충주염소탕·<106>대동기업과 김흥기 정형외과 등의 신축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창문의 돌출된 수평띠, 혹은 발코니가 처마선과 같은 수평적 경관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③ 수평 연속창: 가로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34>삼양스포츠·<42>삼양출판사·<105>충주 염소탕 등에서 돌출된 수평띠와 함께 수평 연창을 디자인 요소로 택하고 있다.

25) 물론, 이외에도 많은 요소가 복잡하게 엮여지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성격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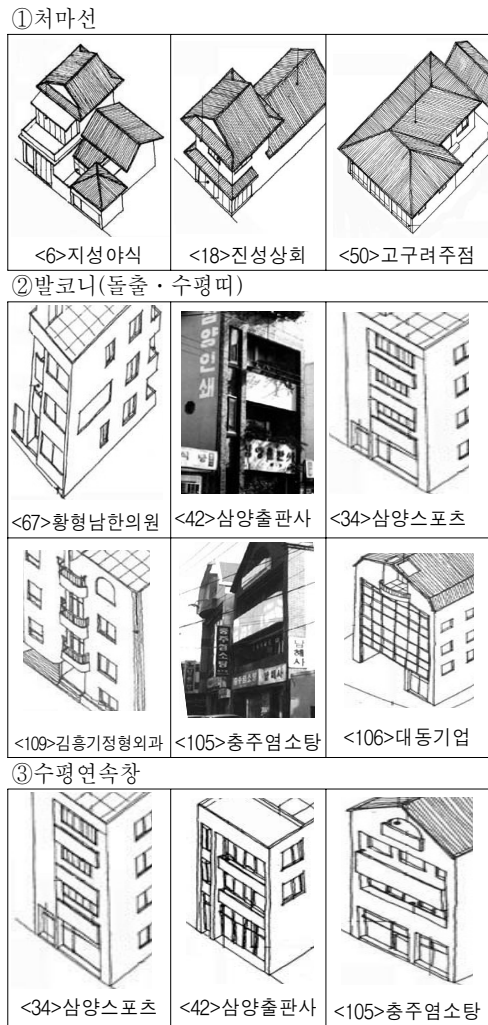


그림 3. 외관 요소

4.2 내외부공간 구성요소

청주지역의 지역적 전통성이 고려된 신축 및 개조사례에 나타난 내외부공간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정: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공간 요소로, <6>지성야식·<9>25시식당·<50>고구려주점 등에서 도로에 면하여 전면·중앙·후면에 전통 주택의 마당을 그대로 설정하여 내부공간기능 및 외부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림 4. 내외부공간 구성요소

② 반 내부공간: 도로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처마공간이나 지붕이 있는 발코니 공간의 형성으로 반 내부공간으로 인식되는 요소로, <74>박소라 미용실 · <90>덕흥상회의 처마공간, <67>황형남 한의원과 김흥기정형외과의 발코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전면의 SET BACK: 도로의 폭에 대응하면서 도심 가로에 개방감을 부여하는 요소로, <67>황형남한의원은 부정형의 대지형태로 인하여, <74>박소라미용실 · <77>현석건축사사무소는 전면주차장의 확보를 위해 셋백되었으나,

<90>덕흥상회에서 3층의 주택이 전·후면으로 셋백된 것은 세장형 주택의 실배치 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²⁶⁾

④ 옥상정원 : <42>삼양출판사와 김흥기정형외과는 건물 전면의 옥상부분에 정원을 설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건물로 도입하였으며, 도로의 보행자들에게 풍부한 자연경관을 인식시키고 있다. <90>덕흥상회 역시 3층 주택의 전·후면으로 테라스를 두고 있다.

4.3 지역환경의 고려요소

청주 구도심은 읍성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긴 선형의 도시격자 구조 속에 역사적 문맥이 풍부한 도시로서 도심 내부에 많은 문화재 및 유적지²⁷⁾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성안길은 이러한 역사적 문맥을 간직한 채 청주의 중심상권을 형성하면서 가장 청주다운 도심 가로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문맥과 더불어 소규모 필지와 좁은 도로 폭에 의해 도시복합주택의 물리적인 건축형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도심 전반에 걸쳐 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지의 조건이나 여러 변수가 있지만 청주지역의 풍토에 대응하고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²⁸⁾

① 전면도로에 연하는 건물의 높이가 도로 폭과 같거나 작은 스카이라인

② 도로의 수평질서에 대응하는 수평디자인 요소 채택

③ 풍부한 자연경관을 고려한 단순한 이미지의 외관

26) 金泰永, 日本國 京都의 町家類型 研究-新京町家の 『후끼누께』(吹抜)를 통하여 본 열림 성향에 대하여, 建築歷史研究, 第9卷, 1996. 10.

27) 이러한 종류에는 철당간, 압각수, 충청병마 절도사 영문, 동헌 및 망선루를 망라하는 문화재 및 유적지등이 상당수 있다.

28) 이상과 같은 디자인 표현은 법적인 제어가 아닌 지역환경에 대한 공동인식에 의해서 생기는 구체적인 고려사항으로서 좀더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현재 청주지역의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복합주택은 우리의 생활·문화를 표출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건축물이다. 이들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시적 기능으로서,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고유가치를 가지면서 지역문화를 표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합주택의 전통성과 지역성 표현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도시구조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시작으로 하여, 지역주민에게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건축으로서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복합주택의 디자인 방향으로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 생활문화와 그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표현이 교차되는 지점에 창작적 의도를 두는 것은 더욱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 내륙지방 중소도시인 청주지역의 도시복합주택을 대상으로 지역 도시구조와 형태·공간디자인의 제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읽어낼 수 있었다.

첫째로, 건물규모에 있어서 가로구성상의 특징인 건물높이와 전면도로 폭의 비가 1 : 1이거나, 그 이하의 범위에서 현재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로, 건물의 외관에서 가로의 수평 질서에 대응한 수평 연속장과 수평 돌출미, 건물외관에 부가되어 공간적 기능을 수용하기보다는 입면의 입체감을 부여하거나 수평성을 강조하는 발코니, 전통주택의 처마선을 가로의 방향으로 유지하거나 현대적 해석을 통하여 처마선으로 인지되는 수평라인의 강조 등의 디자인 요소가 주로 강조됨으로서 지역환경적 측면에서 단순한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있다.

셋째로, 공간디자인 요소는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래된 형식인 중정 형식은 현재 신축되고 있는 건물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옥상정원만이 주로 가로에 접한 건물상부 전면

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건물외부에서도 인지되는 정원으로서 가로경관을 풍부하게 느끼게 하는 요소로 인식된다.

참 고 문 헌

1. 김태영, 청주주택지산책,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8
2. 도시복합주택의 신축 및 개조사례에 나타난 지역적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박중신, 석사논문, 1998
3. 김태선·김태영, 도시복합주택에 있어서 「영업」과 「거주」기능의 구성에 따른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도시지역개발연구 제5집 91-101쪽, 1997. 12.
4. 김태영, 일본국 경도의 정가유형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9권 50-72쪽, 1996. 10.
5. 이훈·김태영, 한국 근대도시주택의 건축요소별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4호, 통권78호, 1995, 4
6. 김태선, 청주지역 복합주택의 유형화와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1997
7. 충북대학교·청주대학교 건축계획연구실, 청주근대도시주택, 1994. 9
8. 김태영, “일제강점기 지방도시의 외인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권 7호, 1993. 7.
9. 손세관, 도시주거형성의 역사, 열화당, 1993.
10. 三村浩史, 歴史的都心地區における町家・町並みの保存と継承の具体策(1)(2), 社団法人住宅総合研究財團, 1993
11. 伊澤はる, 京町家の建て替え・改造にみるデザイン創作と町並み形成に関する研究, 京都大, 修論, 1992
12. 청주대학교 건축계획연구실, 근대 도시주택실측조사보고서 I (청주읍), 1992. 4.
13. 송인호, 도시형 한옥유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0
14. 이동수,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 지역성 표현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89
15. 翼和夫, 「地域型 住宅の構想」, 地域型住宅研究會, 京都府土木建築部住宅課, 1987
16. 양상호, 2층 한옥상가에 관한 사적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1985
17. 청주시지 편찬위원회, 청주시지, 청주시, 1976